

제 목

최근 홍콩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

I 재정수지 현황

- 홍콩은 과거 흑자재정에서 코로나 시기의 재정지출 확대, 코로나 종료 이후의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지속
 - 리오프닝 이후(FY2023*) 재정지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부동산 시장 부진**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적자가 1,730억홍콩달러(GDP 대비 5.8%)를 기록하여 직전 회계연도(1,880억달러)에 이어 대규모 적자를 시현
 - * 홍콩정부의 fiscal year는 4.1일~3.31일이 기준임
 - ** 금년 1월 현재 홍콩의 주택가격 지수는 306.4로 2021년 고점(398.1) 대비 23% 하락
 - 재정적자 지속으로 홍콩 정부의 재정유보금(Fiscal Reserves)도 연간 정부지출 대비 200% 수준에서 100%대로 하락하였으며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발행이 없었던 정부채권도 최근 600~700억홍콩달러 수준으로 발행
- 환율페그제를 운영하는 홍콩은 환율 안정의 지속성을 위해 재정건전성과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이 필수적(<붙임> 홍콩의 환율제도 참조)

홍콩 재정수지 추이¹⁾홍콩 재정유보금¹⁾ 및 재정지출 대비 비중

주 : 1) 단위 : 10억 홍콩달러

자료 : Financial Services and Treasury Bureau 등

작성자 : 홍콩주재원 김민규 차장

II 재정개선을 위한 홍콩정부의 대응

- 홍콩정부는 재정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개인소득세*, 담배세, 숙박세** 등을 통한 세수확보 노력과 함께 재정 부족시 채권발행 등을 통해 필요 재정을 확보할 계획
 - * 연간 HKD500만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적용하던 표준세율을 15%→16%로 인상하고 소득세 면제 상한 세액을 연간 HKD6,000→3,000으로 하향조정 등(예: 소득세 산출액이 HKD4,000인 경우 3,000만 면제)
 - ** 2025년 1월부터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3% 부과
- 한편 홍콩정부는 주택 취득세(인지세, Stamp Duty) 등을 대폭 축소*하고 대출규제 완화**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
 - * 외국인 주택구입자(15%), 2주택자(7.5%) 등에 추가로 부과하던 세금을 폐지
 - ** HKD3천만 이하 주택에 대해 LTV를 작년에 이어 60%에서 70%로 추가 상향 조정 등
- 단기적으로는 관련 세수가 감소할 수 있겠으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시 부동산 개발용 토지매각* 등을 통해 정부수입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* 홍콩의 경우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세입의 상당부분을 토지매각(75년 또는 99년 사용권 매각)으로 충당하고 있음

III 전망 및 평가

- 홍콩정부는 향후 재정적자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*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
 - * 재정적자 전망치 : FY2023 HKD 1,730억 → FY2024 480억 → FY2025 60억 → FY2026 330억
- 당분간 홍콩내 고금리*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 영향 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제약될 가능성
 - * 환율페그제 유지를 위해 미국 연방기금금리(Federal Funds Rate)를 인상(하)하는 경우 HKMA도 관련 금리를 조정
- 2023년 홍콩 방문객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60.8%까지 회복하였으나 주요 방문객인 중국 본토 관광객들의 소비 등이 여전히 부진

-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7,000억 홍콩달러대의 재정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환율페그제(연계환율제도)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
 -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(24.1월말 기준 USD 4,232억)으로 보유
- 다만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등은 재정수지 개선의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제금융허브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 - 최근 싱가포르 등이 부상하면서 홍콩의 국제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다소 저하*
 - * 홍콩은 2022년 3월에는 국제금융센터지수(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)가 뉴욕,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였으나 2022.9월에 싱가포르(3위)에 역전되어 4위로 하락

<붙임>

홍콩의 환율제도

- 홍콩통화청의 통화정책 목표는 “통화가치의 안정(currency stability)”이며, 연계환율제도(Linked Exchange Rate System)를 통화정책체계의 근간으로 운용
 - 연계환율제도는 고정환율범위(1US\$ = 7.75~7.85HK\$)에 따라 미달러화와 홍콩달러간 완전한 태환성(convertability)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
 - 발권은행이 홍콩달러화를 발행*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미 달러화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한 자의적인 통화증발은 원천적으로 차단
 - * 발권은행은 미달러화를 HKMA가 관리하는 외환기금(Exchange Fund)에 예치하고 HKMA로부터 채무증서(certificates of indebtedness)를 발급받아 홍콩달러화를 발행
-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하며 동 제도하에서 자본유출입은 환율이 아니라 금리 변동을 통해 자동조정(automatic mechanism)
 -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연방기금금리(Federal Funds Rate)를 인상(하)하는 경우 HKMA는 재정거래(arbitrage)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금리를 즉각 조정
- 연계환율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외 환투기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인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적